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이괄의 석굴

석가여래 뒤이어 미륵불이 오리라



용문석굴 빈양중동 불상. 북위시대 만들어진 불상 중에서 가장 미소가 아름다운 불상 중 하나다. 화화양식(華化樣式)의 대표적인 불상으로 온화한 미소가 보는 이들을 웃게 만든다.

용문석굴이 위치한 곳은 이괄(伊闕)이라 불렀다. 중국 북위(北魏) 학자 역도원이 저술한 중국의 하천지인 <수경주>(水經注)는 이괄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용문석굴 앞을 흐르는 강(伊水)이 용문산과 향단산 사이를 흐르는데, 이 두 산이 강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마치 궤(關)와 같다는 것이다. 궁전과 같은 이곳은 선대 황제들을 기리기 위한 석굴의 조성지로 최적지였다.

이러한 용문석굴에 관한 기록은 <석로지>에 자세히 등장한다.

"경명(景明) 연간(500)에 대장추경(大長秋卿: 관직명)인 백조(白整)에게 조칙을 내려, 대동(大同) 영암사(靈巖寺) 석굴(운강석굴)에 준해 낙양의 남쪽 이괄산(伊闕山)에 효문제와 그 황후 문소황태후(文昭皇太后)를 위한 석굴 2곳을 조영케 했다. 처음에 지면에서 석굴 정상까지 310척(91m)이 되게 만들려 했다. 정시(正始) 2년(505)에 산을 파냈을 때 23장(54m)이 됐는데 대장추경(大長秋卿) 왕질(王質)이 너무 높아 공을 들여도 완성하기 힘들다고 생각해, 아래로 옮겨 평지에서 높이 100척(30m), 남북으로 140척(42m)의 석굴로 만들자고 아뢰었다. 화평연간(永平年間: 508~511)에 유동(劉騰)이 상소를

올려 선무제를 위한 석굴 1개를 조성해 3개의 석굴이 완성됐다. 경명원년(景明 元年: 500)에서 정광4년(正光四年: 525) 6월까지의 총 802,366 명의 인력이 쓰였다."

이 기록에서 조칙에 의해 조성된 석굴은 빈양동(賓陽洞)으로 용문석굴 중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성된 최초의 석굴이다.

흔히 자신들의 선조를 기리는 일을 '추선공양(追善供養)'이라고 하는데, 용문석굴에서는 운강석굴처럼 복위 황실의 추선공양과 황족불(黃即佛: 황제가 곧 부처) 사상이 드러난다. 또 석가여래에 대한 신앙으로 시작해 미륵신앙과 조화를 이루려는 북위 특유의 신앙의 변천을 잘 나타낸다.

<석로지>에서는 "석가여래 앞에 있던 여섯 부처님의 뒤를 이어 석가여래께서 깨달음을 얻었으며 장차 석가여래의 뒤를 이어 미륵불이 세상에 오리라"고 기술했다. 용문석굴 고양동의 좌우불감에는 상단에 석가여래를 중단에 미륵교각보살상을 위치해 석가여래의 계승자로 미륵불을 여기는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미륵에 대한 열정은 사후 도솔왕생의 열망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미륵불의 현신을 바라는 강한 의지도 함께 투영됐다고 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57

개심사 연못

연못 위로 낙엽이 쌓이고 있었다. 상왕산 개심사. 가을을 보러 온 사람들이 연못을 지날 때마다 낙엽들 사이로 파란 하늘이 내려와 잠겼다.

떨어진 낙엽 위엔 양상해진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멀리서 울던 산새는 가지를 옮겨 앉았다. 가을엔 자연도 자연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연못에 떨어진 낙엽은 떠나온 가지를 볼 수 있었고, 가지를 옮겨 앉은 산새의 눈에 떠나온 숲이 보였다. 자연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다.



몇 해 전 가을, 개심사 연못은 시를 써낸 눈동자처럼 깊었고, 쌓이는 낙엽 사이로 하늘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연도 자신을 바라보는 가을, 한 번쯤 우리도 우리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19도 상방제법상무량역불장엄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삽화는 상방세계의 한이 없는 부처님들이 증명하여 아미타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중생들이 믿을 것을 권하는 내용이다. [上方諸梵相無量億佛莊嚴]

이 도상도 제14도에서 시작하여 제18도까지 이어지는 도상들과 비슷한 도상이며, 상방의 10여대인 범음불, 수왕불, 향상불, 향광불, 대영건불, 잡색보화엄신불, 사라스왕불, 보화덕불, 건일체이불, 여수미산불등이 아미타불과 아미타경을 찬탄하는 내용이다.

삽화는 상방 10불이 구름에 싸여있다. 중앙에 상하 2불이 앉아 있고 그 좌우에 마름모꼴로 4불씩 배치되었는데 중앙의 여래는 정면관을 좌우의 4여래는 각기 중앙을 향해 약간 측면관으로 앉아 있어 좌우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도상은 11번째 목판 원판의 끝부분에서 12번째의 목판 원판 후반부 3/4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리불야, 상방세계에 있는 범음불, 수왕불, 향상불, 향광불, 대영건불, 잡색보화엄신불, 사라스왕불, 보화덕불, 건일체이불, 여수미산불등 이와 같은 행하수의 제불이 각각 그 나라에서 광장설

상(부처님의 32상중 하나로, 대설상이라고도 한다. 넓으면서 길고, 얇으면서도 부드러운 부처님의 혀 모양, 허망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상이며, 진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시는 표현이다.)을 내시고, 삼천대천세계를 덮으시어 성실한 말씀을 이르셨느니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고 호명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실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니라."

(舍利弗 上方世界 有法音佛宿王佛香上佛香光佛大焰見佛 雜色寶華嚴身佛娑羅樹王佛寶華德佛見一切義佛如須彌山佛如是等恒河沙數諸佛 各於其國 出廣長舌相 徧復三千大千世界 說誠實言 汝等衆生 當信是稱讚不可思議功德 一切諸佛所護念經)

내용의 핵심은 나무아미타불이 염불을 통해 우리 중생들이 극락왕생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다. 중국 선종의 최대 전적인 종경록을 저술한 연수스님은 염불수행의 뛰어남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참선하고 염불을 하지 않으면, 죽은 뒤 그릇된 경계가 나타날 때 열 명 중 아홉은 그 경계를 따라간다. 그러나 참선을 하지 않았더라도 염불을 한 경우, 모든 사람이 다 아미타불을 진견할 수 있으니 어찌 깨닫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이제는 염불이나 참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참선도 염불도 하지 않아 천만번 윤회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말고 노는 입에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수행할 일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교관화백목관 관장)



고려화백목관소장 불설아미타경 제19도 상방제법상무량역불장엄,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각 28.2×21.0cm.

농협농자 1년거치 4년분할상환. 고객만족 초절전형 기능 맞춤형 농작물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저온냉장·냉동고!!

KBS 과학카페 박연숙 원장 출연 (2010. 2. 6).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민속죽염 22년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친환경 삼베타을 선물 SET (사위타을, 세안타을, 수세미). 소중함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을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